

# 요약

---

## 생활임금제는 서울 자치구에서 전국 지자체로 ‘확산 모드’

2013년 서울시 노원구·성북구는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으며 경기도 부천시도 2014년 전국에서 최초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였다.

도봉구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으며 중구·동작구는 조례 제정 후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.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비롯하여 경기도 부천시·수원시, 대전시 유성구, 광주시 서구·광산구 등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로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이다.

## 서울시 2015년 생활임금은 시간급 6,687원으로 결정

서울시의 2015년 생활임금은 서울연구원에서 제시한 가계지출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서울의 물가상승률 1.6%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.

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급 기준 6,687원으로 결정되었으며, 이를 월 급여 기준으로 환산하면 1,397,583원에 해당한다.

## 생활임금제 문제점 지속 보완하고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

서울시는 생활임금제 도입 단계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고,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.

특히 서울시가 자치구의 생활임금제 확산을 주도하면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제도 적용은 지속되어야 한다. 그러나 민간부문의 제도 도입은 강제할 수 없으므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.